

완전복음을 실현한 램네투 요셉

- 복음으로 여는 창세기8-8 요셉 -

창세기 45:1-5, 사도행전 7:9-16

정윤돈 목사님

“잔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속아 영원히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영생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모든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수준,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거듭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사람들은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말을 하고 있다. 질병문제, 전쟁, 경제문제, 재난의 문제, 국제관계, 정치적인 문제 등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드리는 말씀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 그 방법은 요셉과 같은 인물이 세워지는 것이다. 강경,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들과 후대들 중에 이러한 인물을 반드시 주실 줄 믿는다.

오늘은 창세기 설교 마지막 8번째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고자 한다. 요셉은 언약과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대표적인 램네투 서밋이다. 요셉은 서밋타임의 여정 속에서 서밋의 그릇과 자세를 갖추게 된 사람이었다. 노예생활, 감옥생활 전체가 계속 서밋타임이다. 그리고 요셉은 영적 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은 모델적인 인물이다.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버린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창세기 45장 5절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절대복음 안에서 절대목표를 이룬 완전복음을 실현한 사람이었다.

1.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의 인생 즉, 요셉의 언약의 여정에 대하여 간략히 알리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요셉은 애굽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 (2) 요셉은 애굽이 진정으로 사랑한 라헬을 통해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애굽의 특별한 사랑(편애)을 받고 자랐다. 그래서 아버지 애굽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 창세기 37장 3절이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 (3)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이러한 애굽의 편애로 인해 형들의 시기심이 발동하여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창세기 37장 35절이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 (4)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다. 보디발은 노예인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위탁하였다.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이름다웠더라’ 보디발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이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 바로 전도이다.

(5)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창세기 39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6) 그런데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옥중에서도 범사에 형통하였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7)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떡을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요셉이 해석해 준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게 된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8) 그런데 바로 왕이 특별한 꿈을 꾸자 요셉을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시켜 줌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①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2절이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②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시켜주었다. 창세기 41장 33절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은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대안을 제시한다.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6절이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시라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흉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흉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9)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자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고백하였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하고 ‘나는 내 집을 다스리니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10)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네야로’ 지어주었다. 이 이름은 애굽어에서 유래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를 의미한다. 창세기 41장 45절이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네야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리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11) 그리고 요셉은 제사장 보디베리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된다. ‘아스낫’이라는 이름은 애굽어이며, ‘네이트(Neith)’ 여신에 속한을 의미한다. 창세기 41장 50절, 창세기 46장 20절에 보면, 그후는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리의

딸이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 아스낫은 요셉과 결혼할 때에 자기의 삼기던 이방 종교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 증거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축복을 받았다.

(12)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난 후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한 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이 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복음적인 고백을 한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이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13) 이후 아버지 아굽까지 애굽으로 내려와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살았었다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아낸 학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롤' 이다. 그는 그의 평생을 중동에서 상형 문자를 연구하는데 바쳤다. 그는 요셉과 아굽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고센 땅이 현재 고고학자들이 부르는 '아비리스'라는 곳이며, 초기 이스라엘인들이 이곳에 정착했다는 풍부한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고고학자들은 '아비리스'에서 요셉의 집에는 12개의 가둥이 있고 주위에는 12개의 무덤 있는 집을 발견하였다. 창세기 43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다음의 증거는 지금도 요셉의 물결이라고 불리고 있는 수로가 있다는 것이다.

(14) 결국 요셉은 110세에 사망하여 고센 땅에 장사되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고고학자들은 고센 땅 무덤에서 발견한 채색옷 석상을 발견하였다.

2.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응답과 축복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1)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응답을 받았다. 요셉은 자신이 필러감으로 가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체험하였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희생하거나, 손해를 봄으로 전체를 살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나의 희생으로 전체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응답인 것이다.

(2) 렘넌트 요셉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다.

① 아굽은 요셉이 태어날 때 비로소 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할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당연한 것도 요구하지 못한다.

② 흉년 속에서 가족과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해주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였다.

③ 바로 왕에게 애굽 주변의 모든 땅을 얻게 하였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7년 흉년 전에는 애굽의 지방(지방 자치단체 '노움')에 있는 '노움'의 호족(리더)들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바로 왕은 그다지 힘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7년 흉년 동안에 주변에 있는 호족들이 바로의 중앙정부에 그들의 소유였던 토지와 식량을 바꿈으로 해서 그 때부터 바로 왕의 힘이 막강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4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3) 가정과 기문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24, 25, 영원의 응답이다. 창세기 50장 21절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4) 세계복음회의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1, 3, 8의 응답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5) 당시 세계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3서밋의 응답,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응답이 실현된 현상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먼저 영적서밋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로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창세기 41장 38절이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 세 번째로 요셉이 완전복음을 실현한 현상과 그 비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전달된 언약과 복음의 흐름이 체질화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빛의 열매라고 볼 수 있다.

(1) 요셉은 노예생활도 성실하게 일을 했다. 이것이 Nobody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다.

(2) 보디빌의 아내가 유혹하고 누명을 씌웠지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No time이다. 요셉은 어떤 시간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직복음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렸던 것이다.

(3) 감옥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것이 No where이다. 요셉은 어떠한 장소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 응답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 필연 절대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셉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판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도 요셉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발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요셉이 붙잡은 언약은 with,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신다는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이다. 요셉을 총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행복하게 누렸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요셉처럼 237나라의 재앙을 해결해주고 영육간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요셉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찾아 24시간 기도한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깊은 기도 속에서 미래의 응답이 생생하게 앞당겨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보시기를 바란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도 요셉처럼 어떠한 어려운 현장에서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최고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와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요셉의 삶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요셉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요셉이 누렸던 응답과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